



해외 주요 타이어업체 최근 동정



브·리·지·스·톤



항공기용 타이어 생산능력 확대

브리지스톤사는 증가하는 항공기용 타이어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동사 Tokyo 공장에 설치되고 있는 신규 래디얼 항공기용 타이어 설비의 생산능력을 2.5배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동사는 생산능력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았으나, 동 프로젝트에는 25억엔(1,600만 유로)의 예산이 책정될 것이며, 동 설비의 생산가동은 올해 말에 시작되어 2010년4월까지 총 생산능력 수준으로 가동될 예정이다. 현재 브리지스톤사의 항공기용 타이어 생산은 일본 Kurume 공장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금번 도쿄공장은 래디얼 항공기용 타이어 설비를 갖춘 두 번째 공장이 될 것이다.

〈자료 : 유럽「European Rubber Journal」, 08.5·6월 통합호〉

헝가리 신규공장, 전 공정 자동화 시스템 가동 개시
브리지스톤사는 올해 1월부터 생산가동에 들어간 시작한 헝가리 Tatabanya 신규공장에서 BIRD(Bridgestone Innovative and Rational Development) 생산 시스템을 공식적으로 개시하였다. BIRD 시스템은 재료 가공부터 마지막 타이어 검사공정까지의 모든 타이어 제조 공정을 자동화하는 브리지스톤사 고유의 생산 시스템이다.

총 1억 9,000만 유로가 투입된 Tatabanya 공장은 BIRD 시스템이 적용되는 유럽지역 최초의 공장으로서, 현재 종업원수는 약 200명이며, 09년에는 승용차용과 소형트럭용 고성능 및 대규모 림 래디얼 타이어를 일간 8,000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예정이다.

〈자료 : 유럽「European Rubber Journal」, 08.5·6월 통합호〉

미국 Akron에 기술센터 건립

한 때 타이어 공장이었던 97년 된 건물에 주재해 있는 기술센터를 새로이 할 필요가 있다고 지난 1월 발표하였던 브리지스톤/파이어스톤사는 1억불의 예산을 할당하여 미국 Ohio주 Akron에 새로운 기술센터를 건립하기로 결정하였다. 동 기술센터의 건설 착공은 2010에, 그리고 2012년에는 개설하여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자료 : 미국「Rubber & Plastics News」 08.8.11일자〉



미·쉐·린



South Carolina 공장 증설 및 향상 계획

미쉐린 북미사는 미국 South Carolina주 Lexington 주재 두개 타이어 공장에서의 생산능력 증대와 설비 향상을 위해 9,000만불을 투자할 계획이다. 동 투자계획은 'South Carolina 지역 설비의 3억 5,000만불 투자계획'의 일환으로, 시장 확대와 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미쉐린사는 현재 Lexington 지역에 1981년에 가동을 시작한 레디얼 승용차용 및 경트럭용 타이어 생산 공장과 1998년에 가동된 OTR 레디얼 타이어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 공장의 생산능력은 합하여 일간 24,000개 수준이다.

〈자료 : 미국「Rubber & Plastics News」 08.6.30일자〉



굿·이·어



공장 업그레이드 투자 계획

지난 5년간에 걸쳐 흑자 전향에 성공한 굿이어사는 공장의 현대화, 생산비용 감축, 신흥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 그리고 향후 고부가가치 타이어 생산량 증대를 위해 18억불을 투입할 계획이다. 동사에 따르면, 수년간의 자산 및 비핵심 사업부 매각과 북미에서의 철강노조와 관련된 개혁, 구조조정 등을 거쳐 이제 수익성 있는 성장 전략을 추구할 수 있는 재정적 유연성을 갖췄으며, 동 전략에는 신흥시장, 특히 중국, 러시아 그리고 브라질 시장 집중 공략과 고부가가치 타이어 부문에서의 글로벌 점유율 확대가 포함된다.

〈자료 : 미국「Tire Business」 08.7.7일자〉

중국 Dalian 공장, 이전 확대 계획

굿이어사는 '저비용 지역에서의 생산능력 50%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2012년까지 중국 Dalian 공장에 5억불을 투자하여 트럭용 타이어 제조를 시작할 계획이다. 동사는 기존의 Goodyear Dalian Tire 회사를 Pulandian에서 약 30마일 떨어진 부지로 이전, 확대할 것이며, 신규 공장의 착공과 설비 이전은 2010말로 예정되어 있다. 1994년에 굿이어사가 인수한 현재 Dalian 공장은 500명의 종업원과 일간 15,000개의 승용차용 및 소형트럭용 타이어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번 신규 공장 설립 계획에 따라 동사는 중국에서는 처음으로 트럭용 타이어를 생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 : 유럽「European Rubber Journal」 08.7·8월 통합호〉

중미주 지역 생산 강화 투자계획 및 호주 공장 폐쇄
 굿이어사는 미국, 남미 그리고 유럽지역에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180억불의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향후 5년에 걸쳐 미국 4개의 타이어 공장(Alabama Gadsden, North Carolina Fayetteville, Kansas Topeka, Virginia Danville)에서의 설비 현대화, 고부가가치 타이어 생산량 증대, 그리고 비용 효율성 향상을 위해 5~7억불을 투자할 것이며, 남미에서는 브라질, 칠레에서의 제품 생산량 확대에 6억불을 투입하고, 유럽지역에는 약 5억불을 할당하여 독일과 폴란드 공장을 현대화하고 생산능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굿이어사는 고비용 제조 시설의 감축 전략의 일환으로 08년 말 이전에 호주의 타이어 공장을 폐쇄할 계획이다. 동 공장폐쇄 조치는 호주와 뉴질랜드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시장 사업부에서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저비용 지역 공장에서의 고부가가치 타이어 생산 확대 전략의 일환이다.

(자료 : 유럽「European Rubber Journal」 08.7·8월 통합호)



콘·티·넨·탈

미국 Mount Vernon 공장 추가 투자 계획

콘티넨탈 북미사는 향후 3년간에 걸쳐 미국 Mount Vernon 공장에 6,000만불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동 계획은 이전에 동사가 발표했던 동 공장으로서의 1억 6,000만불 투자 계획에 추가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이에 따라 06년 이후 동 공장에 투자된

그리고 투자될 금액은 2억 2,000만불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동사에 따르면, 이번 추가 투자 계획에 따라 제조상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어 증가하는 교체용 타이어 시장 수요, 특히나 고부가가치의 고성능과 초고성능과 같은 범주의 교체용 타이어의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 : 미국「Tire Business」 08.7.21일자)



피·렐·리

러시아에서의 합작기업 설립 계획

피렐리사는 러시아 국영 투자 회사 'Russian Technologies'와 합작하여 420만개의 승용차용과 산업용 타이어를 생산할 수 있는 타이어 공장을 러시아에 건립할 계획이며, 양사는 올해 9월 30일까지 합작기업 최종 설립 계약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였다. 동 신규공장은 러시아 특별경제지구 산업기술공단 지역인 Togliatti에 건립될 것이며 이미 Samara 지역 정부의 승인을 받은 상태이다.

Russian Technologies는 러시아 국내 기업들이 국내외 시장에서 첨단 기술 산업 제품을 개발, 생산, 수출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돕기 위해 러시아 연방정부가 설립한 법인이며, 동 합작에서 피렐리사는 피렐리 브랜드를 앞세워 사업전략을 개발하고 합작기업을 운영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렐리사에 따르면 동사는 매년 러시아에 120만개의 타이어를 수출하고 있다.

(자료 : 미국「Rubber & Plastics News」 08.8.11일자)

이집트와 중국 지역 생산능력 확대

피렐리사는 6,500만불(4,140만 유로)을 투입하여 이집트 Alexandria에서의 트럭·버스용 타이어 공장에서의 생산능력을 확대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Alexandria 공장은 연간 100만개의 타이어를 생산할 수 있게 되어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트럭·버스용 래디얼 타이어 제조에 있어 가장 큰 규모의 생산설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장률이 크고 비용경쟁력이 우수한 국가에서의 제조 증가 전략의 일환으로, 유럽지역의 신흥 시장과 주요 고객을 대상으로 한 제품 향상 및 고품질 제품 제조기술에 초점이 맞춰질 이번 확대 계획으로 1999년 이후 이집트에서의 피렐리사의 총 투자액은 3억불 정도가 될 것이다.

한편, 중국시장에서 피렐리사는 2011년까지 1억불 정도를 투자하여 중국에서의 승용차용 및 트럭용 타이어 생산능력을 2배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2011년까지 중국 시장에서 동사의 총 생산능력은 연간 1,100만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자료 : 유럽「European Rubber Journal」 08.7·8월 통합호〉

어 3,500개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예정이다.

〈자료 : 미국「Rubber & Plastics News」 08.6.2일자〉



요·코·하·마



브라질과 태국에 판매사무소 설립

요코하마시는 호조를 보이고 있는 남미와 태평양 연안지역에서 타이어 판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브라질과 태국에 판매사무소를 최근에 설립하였다.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판매량이 증가되어 온 남미시장 전역의 판매를 관리하기 위하여 브라질 Sao Paulo에 설립한 신규 사무소는 지속적인 판매 촉진과 고성능 승용차용 타이어에 초점을 맞춘 마케팅을 지원하게 될 것이며, 동 사무소의 개점과 동시에 기존의 파나마 사무소는 폐쇄될 예정이다. 한편, 태국 방콕에 설립된 신규 아시아 판매 사무소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과 서아시아 국가들에서의 교체용 타이어부문 마케팅과 기술서비스 거점이 될 것이며, 태국, 필리핀, 베트남 그리고 대만에서의 요코하마사의 제품 제조와 판매를 위한 구입기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될 것이다. 또한 동 사무소는 부분적으로 브랜드 및 판매 채널 정책을 촉진하고 주로 고성능 타이어 부문에서의 타이어기술 부문 업무를 향상시킴으로서 ASEAN과 서아시아 시장에서의 교체용 타이어 판매 확대를 지원하게 될 것이다.

〈자료 : 미국「Rubber & Plastics News」 08.6.2일자〉



수·미·토·모



중국 공장 생산 확대

수미토모사는 중국 Changshu 공장에서의 생산능력을 20% 확대하기 위하여 2010년까지 1억 3,500만불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동 공장은 일간 승용차용 타이어 3만개, 그리고 트럭·버스용 타이어



쿠·퍼

멕시코 타이어 공장 지분 인수 계획

쿠퍼사는 3,100만 불을 투자하여 멕시코 Guadalajara 타이어 제조공장에서의 38% 소유지분을 인수할 계획이며, 동 공장은 쿠퍼, IBSA(멕시코 지주 그룹) 그리고 TRADOC Srl(종업원 주주 조합)의 공동 소유가 될 것이다.

동사에 따르면, 동 인수계획은 가격 경쟁력이 있는 대외구매를 위시한 동사의 전략적 계획의 일환으로, 동사의 미국 공장의 타이어생산을 보완하기 위한 안정된 공급원을 확보하여 북미시장에서의 고객 수요에 부응하고 쿠퍼 브랜드로 멕시코 시장의 용이한 진입을 위한 것이다.

멕시코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동 'Corporacion de Occidente' 타이어 생산 공장은 현재 매년 240만개의 승용차용 래디얼 타이어를 생산하고 있으며, 향후동 공장에서의 생산능력은 2010년 말까지 460만개, 2011년에는 600만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자료 : 유럽(European Rubber Journal, 08.7·8월 통합호)



도·요

미국 Georgia 공장 확대와 아시아지역 공장 추가 신설 세계전역에서의 타이어 생산능력 증대 계획의 일환

으로, 도요사는 약 5억 2,000만불의 예산을 할당하여 미국 Georgia White 공장에서의 생산 확대와 아시아지역에서의 승용차용 타이어 생산 공장을 추가로 신축할 계획이다.

설립된지 2년된 Georgia 공장은 06년 초 이후 지속적으로 애당초 생산능력 목표치인 200만개 수준으로 생산량을 확대되어 왔다. 하지만 동사의 북미지역 매출은 07년에 전년대비 18% 증가하면서 최초로 10억불을 초과하였으며, 북미시장에서의 이 같은 수요증가와 동사의 확장 의지가 맞물려 금번 확대계획과 같이 계속적인 확대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한편, 동사는 아시아 지역 기존 공장들의 생산능력이 세계 타이어 수요 예상 증가량을 맞추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판단아래 신규 공장을 추가 설립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적합한 공장 부지를 모색하고 있다.

2억 3,200만불의 예산이 할당되어 설립될 신규 공장은 주로 해외 수출 공급용으로 연간 400만개의 승용차용 타이어를 생산하게 될 것이며 2012년 3월까지 가동할 예정이다.

(자료 : 미국(Rubber & Plastics News, 08.6.2일자)



J·K·타·이·어·사

Tornel사 인수 완료

세계 24위(06년 매출액 기준)의 타이어 제조업체인 인도 JK 타이어사는 270억 루피 (4,000만 유로)를 투입하여 멕시코 타이어 회사인 Tornel사에 대한 100% 지분 인수를 완료하였다. 동사는 금번 Tornel

사 인수를 통하여 세계 타이어 시장 점유율을 상당히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NAFTA 지역과 부상하고 있는 중서부 아메리카 시장으로의 진출을 위한 전략적 거점으로서 멕시코 시장에서의 시장 입지를 강화할 수 있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자료 : 유럽「European Rubber Journal」 08.7 · 8월 통합호)

해외매출 비중

일본 타이어메이커들의 글로벌화 진전으로 매출액(연결재무제표) 중 해외 매출액 비중은 매년 높아져 타이어 4개사의 07년 해외매출 비율은 67.1%이며, 특히 브리지스톤의 경우 76.4%로써 매출액의 3/4 이상이 해외에서 창출되었다. 타이어 각사는 활발한 해외수요에 대처하여 해외생산거점의 확대, 증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해외매출 비중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료 : 일본「고무호차신문」 08.6, 9일자, 7. 14일자)

일본 타이어 제조 4개사

08년 사업실적 및 설비투자 전망

매년 3월에 결산을 하는 요코하마고무와 도요고무공업의 08년 사업실적(연결재무제표) 전망을 보면 매출액은 전년대비 2.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비해 영업이익과 경상이익, 당기순이익은 각각 25.5%, 19.3%, 44.1%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일본 타이어메이커 4개사(브리지스톤, 스미토모고무공업, 요코하마고무, 도요고무공업)의 설비투자는 글로벌화 전략으로 적극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4개사의 07년 설비투자실적은 3,715억 엔으로 전년대비 1.7% 증가하였으며, 특히 스미토모고무공업의 경우 17.4% 현저한 증가를 기록하였다. 이들 메이커의 08년 설비투자계획을 보면, 07년 대비 크게 늘어난 4,288억엔으로 15.4% 증가시킬 계획이며, 각사별로는 브리지스톤이 12.0%, 요코하마고무 61.2%, 도요고무공업 39.6% 각각 확대하여 투자할 계획이고 스미토모고무공업은 전년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